

# 중국의 정치적 동원체제

소 치 형\*

## ◁ 목 차 ▷

I. 동원체제의 특징  
II. 중국의 군중운동

III. 군중운동의 유형과 사례  
IV. 결 론 : 모택동시대와 등소평시  
대의 비교

## I. 동원체제의 특징

공산주의국가는 집권한 후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 건설이라는 이상과 더불어 공산당의 권력 독점과 체제의 기능적 요건을 조화시킨 실천 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회의 동원화를 시도한다.<sup>1)</sup> 공산주의체제는 체제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위로부터의 혁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 현대중국연구소장

1)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8, 25.

따라 사회적 동원이 전개되는 것이다.

에치오니에 따르면, “동원은 활동 단위의 관점에서 보아 잠재적인 에너지가 집단적 행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동원 개념은 각종의 可用資源에 대한 사회의 통제가 의도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지칭한다.”<sup>2)</sup> 정치체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아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顯在化시키는 수단이다.<sup>3)</sup>

공산주의체제는 동원단계에서 부터 근대화·공업화 등과 같이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정치사회를 위해 결정적인 돌파작업을 시도해 왔다.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의 동원체제(mobilization regime)는 분명 미래 지향적 이데올로기 즉, 새로운 사회건설 및 새로운 사회주의인간 창출과 관련되는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계획과 즉각적인 행동 그리고 과감한 사회적 개편을 단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체제에서의 동원 분위기는 위기와 급변적이고, 결국 모든 사회영역은 政治化되기 마련이다.<sup>4)</sup>

동원체제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특수이익이나 의견의 공적 그리고 조직적 주장을 제약하면서 국가권력을 확대시키고 국가에로의 봉사로서 그 구성원들을 끌어들이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논자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의도한 행위를 자발적 참여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동원적 참여로 구분하여 動員을 參與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어떤 주어진 행위의 외적 행태가 관행적인 양식에 부합되면 행위자의 의도, 동기, 자율성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들이 동원된 참여를 정치행위 범주에 귀속시키는 이유는 동원된 참여와 자율적 참여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며 양자가 혼합된 경우가 많다는 것과 동원된 참여도 內面化되어 중국에는 자율적 참여로 전환될 수

2)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New York : Free Press, 1968), pp. 388~390.

3)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31.

4) *Ibid.*, p. 360.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되기로 하여 양자의 참여가 모두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5)</sup>

공산당이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관건은 손쉽게 효율적으로 인민군중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사상적으로 교육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요청되기 마련이다. 당을 믿고서 따르도록 만들며, 인민군중의 의식 및 사상을 통일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政治敎化(political indoctrination) 및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치사회화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진 敎示的 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가치나 정보 등을 인민군중에게 주입시켜 특정의 성격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정치사회화는 대부분 정치적 목적을 함축하고 있으며, 체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아 공산당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교육이기도 하다.

정치교화는 보다 구체성을 띠고 진행된다. 정치교화는 어떤 특정의 정치체제를 합리화·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인민군중에게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치교화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면 政治的 洗腦(political brainwashing)가 된다.<sup>7)</sup>

## II. 중국의 군중운동

중국에 있어 군중운동(mass campaign)은 특정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5) Samuel P. Huntington and John Nelson, *No Easy Choice :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p. 7~10.

6) Fred I. Greenstein,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 Vol. 14(London : MacMillan, 1972), pp. 551~552.

7) James S. Coleman,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226.

인민군중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도출하고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집단적 행위를 통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종의 정치동원이다.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및 계획은 이에 대한 인민군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군중운동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sup>8)</sup>

공산당은 인민군중을 동원하여 이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해 왔다. 이리하여 인민군중은 불가피하게 정치의 장에 참여하게 되며 군중운동이 의도하는 정치적 목표, 즉 당 및 정부의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지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의 군중대회나 집단적 시위에 동원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타율적 요구 및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군중동원의 형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아왔는데, 동원적 참여(mobilized participation)가 그것이다.<sup>9)</sup>

중국에 있어서 인민군중이란 중국 인민 가운데 일부분의 공산당원과 당 간부를 제외한 90% 이상의 인민을 뜻한다.<sup>10)</sup> 맑스·레닌주의 교리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은 모두 특정 계급에 속한다. 따라서 군중은 이러한 개인의 집합체이다. 공산당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추상적인 군중이나 일반적 의미의 군중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군중은 계급적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노동자군중(工人群衆)이 아니라면 아마 그 사람은 농민군중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계급에 속하는 군중인 것이다.<sup>11)</sup>

중국의 광범위한 대규모의 인민군중은 정치의 객체로서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따라서 강요된 혹은 강압적 동원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

8) Lucian Pye, "Communication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Asian Survey*, Vol. 18, No. 3(March, 1978), pp. 228~230; James C. F.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92), p. 213.

9) Samuel P. Huntington & Joan N. Nelson, op. cit., pp. 4~9; James R. Townsend, "Revolutionizing Chinese Youth: A Study of Chung-Kuo-Ching-Nien," A. Doak Barnett(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 185.

10) James C. F. Wang, op. cit., p. 206.

11) 張敬文, "共匪의 群衆路線," 張敬文(編), 「共匪政治問題論集」(台北: 國際關係研究中心, 1975), p. 67.

에 군중동원은 대부분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서 전개된 정치동원(political mobilization)이었던 것이다. 劉少奇는 1945년 4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7전대회에 제출했던 黨章修正案 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당의 군중노선은 우리 당의 근본적 정치노선이며 또한 우리 당의 근본적 조직노선이다. …우리의 이러한 군중노선은 오직 무산계급 정당에만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군중노선은 곧 계급노선이며 무산계급의 군중노선이다.”<sup>12)</sup>

군중노선이 지니는 정치적 성격은 鄧小平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는 1956년 9월 16일 개최된 8전대회에서 행한 黨章 개정에 관한 보고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의 공작중에서 군중노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반드시 인민군중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당은 전심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한다. 당은 인민군중을 영도하는데 있어서 투쟁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 주고, 인민군중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쟁취하고 창조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당이 영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견지하는 것은 「군중 속으로부터 나와 군중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 채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sup>13)</sup>

위와 같이 중국에서의 군중노선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철저히 정치지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민군중을 움직여서 정치적 목적

12) 1945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이 대회에서 유소기가 제출한 보고서는 1950년 1월 “論黨”으로 개칭되어 출판되었다. 劉少奇, “論黨,” 「劉少奇選集」上卷(北京:人民出版社, 1981), pp. 342~343.

13) 鄧小平, “關於修改黨的章程的報告,” 「鄧小平文選 一九三八~一九五六年」(北京:人民出版社, 1989), p. 205.

과 관련된 군중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함으로써 군중동원은 정치동원으로 전환되어 인민군중의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군중노선(mass line)은 중국공산당이 延安에서 활동했던 시대 이래로 당의 인민군중에 대한 지도방법으로 인지되어 왔다.<sup>14)</sup>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군중노선이 제기된 것은 毛澤東이 1943년 6월 1일 발표한 “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에서 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당 간부들은 毛澤東의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인민군중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인민군중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 왔던 것이다.<sup>15)</sup>

毛澤東은 위의 논문에서 ‘군중으로부터 나와서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從群衆中來, 到群衆中去)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노선을 올바르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의 간부들이 인민군중과 부단히 접촉하면서 효과적으로 군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밝혔다.<sup>16)</sup> 이와 함께 毛澤東은 다른 하나의 군중노선 원칙으로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에게 배우는 것’을 강조했다.<sup>17)</sup> 이 두 가지의 원칙은 이후 당이 인민군중을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정치동원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는 당이나 국가가 제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인민군중으로부터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동원이다. 당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가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경영 또는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

14) Mark Selden, “The Yenan Legacy : The Mass Line,” A. Doak Barnett(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2), p. 99.

15) John W.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p. 70.

16) 毛澤東, “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 『毛澤東選集』 第三卷(北京 : 人民出版社, 1991), pp. 897~902 참조.

17) 毛澤東, “組織起來,” 위의 책, pp. 928~936 참조.

민군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관건이다.

둘째, 국민적 일체감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정치동원이다. 사회적 통합 또는 국민적 통합이 당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리로부터 파생되는 집단적 에너지는 당의 정책 및 계획 추진에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혁명과 건설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의 총노선을 집체적으로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서 인민군중의 일체감 형성 및 통합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셋째,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파벌간의 권력투쟁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파의 지지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자신의 동조세력이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동원을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다. 권력투쟁은 파벌간에 네가 죽고 내가 사는 투쟁이므로 자파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승리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보전함에 있어 정치동원이 활용되는 것이다.

### III. 군중운동의 유형과 사례

#### 1. 국민통합의 유형

##### 1) 인사출동(引蛇出洞)

‘3반5반’운동이 전국적 규모에서 점차 소강상태에 들어서면서부터 당 중앙은 노동자계급의 의식화가 일단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이 사회주의개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규제·지도할 수 있는 위치와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18) 이 운동의 종료와 더불어 1953년 5월 중국의 노총격인 中華全國總工會는 제7기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총공회’는 이 운동기간 총 1,500만 명에 달하는 당시 노동자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가 완료되자 다른 새로운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동원이었다. 모택동은 그간 신중국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 많은 지식인들을 조종·강요·강제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적 경향이나 지향 가치에 만족감을 얻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의식교육의 필요성과 정신개조의 절박함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 가치 및 목표에 대한 의식 박약과 확신감 결여, 그리고 반사회주의적이며 반혁명적 사상성향을 완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본격적이며 대대적인 지식인 의식화작업에 돌입하였다.

모택동은 4월 28일 직접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예술분야에서의 ‘백화제방’과 학술분야에서의 ‘백가쟁명’이라는 내용으로서 일명 ‘명방’(鳴放) 또는 ‘쌍백’(雙百)으로 불리운다. 당의 선전부장 육정일(陸定一)은 5월 26일 모택동의 지시에 근거하여 각 방면 각 분야에서의 ‘쌍백’을 허용한다는 강화를 발표하였다.

공산당의 명분상의 목적은 지식인들의 자유분방한 활동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독재정치로 인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진 문예·학술분야에 대한 당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명목상의 목표가 보다 구체화되었던 것은 1957년 2월 27일 제11차 최고국무회의에서 모택동이 발표했던 ‘인민 내부의 모순을 바르게 처리하는데 관하여’(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라는 강화에서였다. 그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쌍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방침은 예술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며, 사회주의문화와 번영을 촉진시키는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

들중 1,020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하였는데, 이중 약 45,000명은 당원이었고, 약 95만명은 ‘신민주주의청년단원’이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초 노동조합의 수는 무려 18만개에 달했다. Peter S. Tang, *Communist China Today*, Vol. 2, Chronology (New York, 1957), p. 37;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4), pp. 157~158 참조.

술과 과학의 시비문제는 각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들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학풍과 작풍이 허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sup>19)</sup> 그리고 3월 12일 당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전국선전공작회의’에서 모택동은 당 외부의 인사들도 공산당 내에서의 관료주의·종파주의·주관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sup>20)</sup> 한편 모택동은 이 회의 직후 지방 순시에 올랐으며, 9개 성·시의 선전 및 교육 책임자들과의 좌담회에서도 “비판은 언론자유의 하나이다. 마르크스주의도 비판 가능하다. ‘쌍백’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지시를 내렸다.<sup>21)</sup> 이러한 그의 의도는 공산주의 이론 자체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 그리고 간부들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전국적 및 전반적 ‘쌍백’운동의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명목상의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쌍백’운동의 근본 취지가 지식분자들 가운데 반당적·반사회주의적 인물을 가려내는 이른바 ‘독초’뿌리 뽑기작업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쌍백’정책이 결정된 실질적인 배경은 인민의 적으로서의 우파분자를 색출하고 국민적 통합을 기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관한 논증 자료로서는 첫째, 1958년 5월 당 제8기 제2차회의에서 유소기가 당시의 ‘쌍백’운동은 인민군중으로 하여금 ‘독초’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의 백화를 꽃피워 반사회주의의 ‘독초’를 뿌리뽑을 목적으로<sup>22)</sup> 추진되었다고 밝혔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독초’는 우파 지식분자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둘째의 논증자료는 1957년 3월 12일 개최된 ‘전국선전공작회의’에서 모택동이 국민 통합양식으로서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방법을 소개했던 점이다. 그것은 일방으로 풀어 놓는 뜻을 지닌 방(放)과 쥐어 짜는 뜻의 수

19)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1957. 2.27), 「毛澤東選集」第五卷, p. 388.

20) “在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議上的講話”(1957. 3.12), 위의 책, pp. 403~418 참조.

21) 紅冬·紫夏, 「20世紀中國紀實」第3卷(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2), p. 139.

22) 「中國共產黨第八期全國代表大會第二回會議文獻集」(北京: 外文出版社, 1958), p. 72.

(收) 양자이다. 그는 ‘방’으로서 ‘쌍백’을 허용했으나, ‘수’라는 방법을 통해 그릇된 사상을 뿌리뽑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였다.<sup>23)</sup> 즉, 모택동은 ‘쌍백’운동과 ‘독초’뽑기운동을 동시 병행해 나갈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별히 우파 지식인들의 존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했던 것이다.

셋째의 논증 자료로서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바르게 처리하는 데에 관하여’라는 최고국무회의에서의 강화 내용이 반우파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때를 맞추어 1957년 6월 19일에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사실이다. 이것은 모택동이 인민 내부의 모순문제를 ‘쌍백’운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숨겨진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인 실례이다.

당에 의한 ‘쌍백’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추진되었고, 1957년 4월 27일 당 중앙이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關於整風運動的指示)를 시달하는 가운데 앞서 모택동이 지적한 것처럼 관료주의·종파주의·주관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지식분자들의 비판을 유도해 내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식인 및 관료들이 당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민족학원 부원장이었던 비효통(費孝通)을 비롯하여 역사학자로서 북경대 교수였던 전백찬(塞伯贊)이 입장을 밝혔다. 5월 이전에는 비교적 소수의 지식인들이 ‘쌍백’운동에 참여했으나 6월 경에 이르러서는 많은 인사들이 참가하여 ‘백화제방·백가쟁명’은 문자 그대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명방’추세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이 한달간에 걸쳐 당의 통일전선부와 국무원 관공실이 주도한 좌담회가 모두 38차례나 열렸다. 이 좌담회에는 당 중앙의 책임자를 위시해서 각 성·시의 당·정 관계자들과 민주제당과·언론·과학기술분야, 그리고 교육·위생부문과 공상업계의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당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적 견해를 솔직히 표명하였다. 이들중 대학교수들이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했으며,<sup>24)</sup> 그리고

23) “在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議上的講話,” pp. 414~415.

24) 이들의 비판 내용은 한달 동안 주로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등 유력지에 그대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비판 요지는 中嶋嶺雄, 「現代中國論」(東京: 青木書店, 1983), pp. 112~113 참조.

당시 정부에 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민주제당과 소속의 주요 인사들도 당의 부정적 측면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지식인들의 대변지 광명일보(光明日報)의 편집장이며 '93학사'(九三學社) 중앙위원 저안평(儲安平)은 공산당의 '당 천하'(黨天下) 경향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당 천하 사상은 종파주의 현상의 근본 원인이며, 당원과 비당원간의 모순의 기본 요소"라고 지적하였다.<sup>25)</sup> 뿐만 아니라 국무원 교통부장이자 농공민주당 주석 겸 민주동맹 부주석인 장백균(章伯鈞)과 국무원 양식부장 겸 민주건국회 부주석인 장내기(章乃器), 그리고 국무원 산림공업부장 겸 민주동맹 부주석인 나용기(羅隆基) 등도 한결같이 당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비판했다.

'쌍백'운동이 이처럼 '우경화'의 경향으로 흐르면서 당의 권위가 실추되는가 하면 당이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공격대상이 되기에 이르자 모택동은 적당한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반우파투쟁을 언론과 당의 지시 형식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우파투쟁의 신호를 올린 것은 1957년 6월 8일자 인민일보 사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這是爲甚麼)이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우파분자의 존재를 지적하였고, 이후 우파분자는 반인민적·반공산당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택동은 같은 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우파분자를 공격하자'(組織力量反擊右派分子的猖狂進攻)라는 통지문을 전당에 하달하였다. 그 요지는 반우파투쟁이 하나의 큰 전쟁과 같은 것이므로 이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헝가리사건과 같은 위기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것은 모택동이 국내외의 위기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반우파투쟁을 처리하고자 했던 의도를 밝혀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파제거 작업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동안 당 내에서만 논의 되어 왔던 '인민 내부의 모순을 바르게 처리하는데 관하여'라는 모택동의 담화가 6월 19일자 인민일보에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사실이다. 이것은 당의 공식적 결정에 앞서 인민군중에게 반우파투쟁의 합법성을 주

25) 紅冬·紫夏, 앞의 책, p. 145.

26) 「毛澤東選集」第五卷, p. 432.

지시킴과 아울러서 전국적 규모에서의 국민통합을 겨냥한 정치동원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유는 모택동이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받아야 하고, 독초가 있으면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우리들은 일체의 독초를 반대한다.···우리들은 군중과 함께 꽃과 독초를 분별해야 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독초를 뿌리뽑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sup>27)</sup>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독초’인 우파를 제거하는데 있어 당과 인민군중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반우파운동의 목적이 반인민·반당 요소의 척결에 있었음은 물론이고, 모택동의 계략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 또 하나의 문건은 반우파투쟁을 선언했던 시기보다 불과 20여 일 앞선 5월 15일 당 간부들만이 열람할 수 있었던 그의 글이었다.<sup>28)</sup> 그는 이 글에서 당 내외의 우파분자들이 벌이는 비판이 고조될 때까지 당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뱀을 피어 뱀이 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올 때 잡겠다는 ‘인사출동’(引蛇出洞) 계략을 입증해 주는 문건이었다. 이러한 책략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식분자들은 결국 모택동에 의해서 인민의 적으로, 그리고 반당분자로 숙청되기에 이르렀다.

당의 정치동원은 1957년 8월에 들어서서 주로 문화계의 주요 인물들을 축출하는데 집중되었다. 짧은 기간 ‘쌍백’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당을 비판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 당시 추방되거나 활동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51년에 스탈린상을 받았던 저명한 여류작가 정령(丁玲)을 위시하여 많은 문예인들이 우익적 반당활동을 했다는 죄명을 쓰고 숙청되었다. 이들 지식인들은 대부분 산이나 들로 내쫓겨 노동개조생활을 하는 ‘하향상산’(下鄉上山) 또는 ‘하방운동’의 희생자가 되었다. 당은 반우파투쟁을 지나치게 장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당 제8기 3중대회(1957. 9. 20~10. 9)에서 투쟁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등소평은 이 회의에서 전국 각급 분야에서 전개된 반우파투쟁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sup>29)</sup> 이 회의

27) 위의 책, p 392.

28) “事情正在起變化”(1957. 5.15), 위의 책, pp. 423~429.

29) “關於整風運動的報告,” 위의 책, p. 171.

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당시 반우파로 몰려 탄압받았던 자의 수는 무려 약 55만명에 달했다.<sup>30)</sup>

모택동이 자신의 ‘계속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당 노선에 반대하는 일단의 지식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했던 반우파투쟁이라는 정치동원은 분명히 뱀을 동굴에서 유인해 내는 책략이었다. 지식인들의 반혁명적 요소를 색출해 내고, 당에 비협조적인 또는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체제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은 ‘쌍백’의 추진 동기나 반우파투쟁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등소평도 훗날 이 반우파투쟁이 불가피했던 것이지만 처리과정이 적합치 못했으며, 우파에 속했던 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그들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었다고 실토했다.<sup>31)</sup>

## 2) ‘정신오염’ 반대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이 배타적인 보수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식분자에 대한 인식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sup>32)</sup> 이로써 사회주의의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건설은 지식인의 자유롭고 건전한 입장 표명과 참여로써 가능하다는 개혁파의 지론<sup>33)</sup>이 당 내외에서 점차 많은 동조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인과 과학자의 서구사회와의 빈번한 접촉과 이들에 대한

30) 胡繩, 「中國共產黨的七十年」(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p. 347; 紅冬·紫夏, 앞의 책, p. 151.31) “目前的形勢和任務”(1980. 1.16), 鄧小平文選(1975~1982), p. 207.

31) “目前的形勢和任務”(1980. 1. 16), 「鄧小平文選(1975~1982)」, p. 207.

32) 등소평이 지식인 및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언급했던 “尊重知識, 尊重人才”(1977. 5. 24), “關於科學和教育工作的機點意見(1977. 8. 8),” “在全國科學大會開幕式上的講話(1978. 3. 18),” “改革科技體制是爲了解放生產力(1985. 3. 7)” “中國要發展, 離不開科學(1986. 10. 18),” “科學技術是第一生產力(1988. 9. 5, 12)” 등 鄧小平文選 내용을 참조.

33) “貫徹調整方針, 保證安定團結”(1980. 12. 25), 「鄧小平文選(1975~1982)」, pp. 313~333 참조.

자유로운 언론 보장, 그리고 국가 지적(知的) 자원의 현대화 열망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었다. 특별히 모택동의 ‘자력갱생’원칙을 부정하고 나섰던 등소평과 개혁파는 완전한 서구지향은 아니었으나 먼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정책을 실험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경제에서 서구적 가치를 도입하는 그 자체가 보수적 경향의 좌파세력으로부터의 규탄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서 정치부문에서의 논쟁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보수파는 ‘부르조아 자유화’ 개념을 들고 나서서 개혁파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한편 이러한 그릇된 자유화의 풍조로 인해 개혁파가 주도해 왔던 새로운 문명건설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보수파는 개혁파가 ‘사상해방’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시켰으며, 이에 따른 ‘부르조아 자유화’ 경향이 체제 유지의 골격인 ‘4항기본원칙’을 잠식 또는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정신오염’ 현상이 심화되어 공산주의이데올로기 자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시비가 더욱 정치적 쟁점으로 돌출하게 된 것은 1982년에 들어서서였다. 당내의 보수적 이론가인 호교목(胡喬木)은 사상분야에 있어서 당의 엄격하지 못한 지도를 비판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사상적인 혼란이나 오염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sup>34)</sup>

‘정신오염’을 둘러싼 논쟁의 재현은 마침내 1983년 가을에 개최된 당 제 12기 2중전회에서 등소평이 ‘정신오염’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전이되었다. 이는 1978년 이래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부르조아적 사상의 경향에 4천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등소평과 보수파의 염려가 일종의 경종과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등소평은 연설을 통해 그 동안 대외개방과 서방으로부터 선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방의 일부 저질문화가 침투되었고,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경제학 그리고 사회과학 등에서 철저한 분석과 비판

34) 호교목의 비판적 견해는 “當前思想戰線的若干問題,”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 下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 846~890 참조.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신오염’이 범람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민군중은 물론이고 일부의 당원들과 당 간부들마저 오염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중의 당에 대한 신뢰가 동요되어 급기야 국민통합에 있어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해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식인들과 당원이 오염풍조에 빠져든다면 사회주의이념과 공산당의 지도에 대해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 태도를 가져와 당의 통제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데에 등소평과 보수파들은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상 및 문예분야에서의 정신오염 대상자는 소수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소수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신오염의 위험은 매우 심각하며, 나라와 인민에게 화근과 재앙을 가져다 준다. 정신오염이 방치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주의사상이 범람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제도와 당의 지도에 대한 회의감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된다.”<sup>35)</sup>

당시 당의 선전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보수파는 당의 선전부와 인민해방군의 총정치부를 핵심 주체로 삼아 개혁파의 개방정책을 견제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 즉 ‘정신오염’의 확산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등소평이 이끄는 당 개혁파의 사상지도에 있어서의 오류와 책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차제에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숙당작업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잘못된 외래사조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이념상의 순수성을 견제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등소평에 의한 당 지도문제를 시비하여 개혁파에 대한 도전과 비난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호기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수파는 현대화정책보다 사회주의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좌파 시각에만 집착했음을 알 수 있다.

35) 위의 책, p. 44.

한편 등소평은 ‘정신오염’을 비판하면서 인민군중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당의 지도 등 이른바 세 가지 신념의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제12기 2중전회가 끝난 뒤 약 2개월 후부터 ‘정신오염’ 반대운동을 서둘러 중단시켰다. 그는 전국의 각 선전기관 및 조직이 더 이상 이 운동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인에 기인하였다.

첫째, 등소평 자신에 대한 공격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보수파의 ‘정신오염’ 반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은 등소평의 퇴진이고, 자신의 실각은 개혁파의 몰락은 물론 현대화정책의 포기까지 연계되는 것이었으므로 등소평은 이러한 정치적 도전의 기회를 서둘러 차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대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통합을 견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등소평은 ‘정신오염’을 둘러싼 논쟁과 시비가 보다 심각한 상태로 비화되어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정치투쟁 곧 권력투쟁으로서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보수파의 공격이 적당한 선에서 절제되지 않는다면 재차 문화혁명과 같은 ‘천하대란’이 도래하여 국민적 통합에 있어 극심한 혼란 및 위기가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상황판단은 등소평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문혁의 극좌노선이 바탕했던 기본배경이 좌파의 과격한 급진주의에 기인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로서는 또 다른 권력투쟁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좌파의 공격기회를 시급히 봉쇄하였다. 그리고 체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른 하나의 요인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군부의 정치개입 여지를 사전에 축소·배제하려는 목적과도 관련되었다. 당시 모택동사상의 영향이 가장 많이 잔존하고 있었던 부문은 인민해방군이다. 군의 보수적 지향은 개혁파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고, 사상적 경향이 친보수파로 일관했기 때문에 등소평은 군의 정치개입을 마땅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국가이익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보수파가 주도했던 ‘정신오염’ 반대는 서구 자본주의사상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 표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서구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확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기도 했다. 특히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무역규모의 확대, 경제교류의 증가,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폐쇄적이고도 고립지향적인 ‘정신오염’ 반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는 현대화정책에도 역행되며, 더우기 국가이익의 추구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의해 등소평은 ‘정신오염’운동의 종단을 촉구했고, 1984년 봄 당 중앙은 전 당의 조직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운동을 취소했다. 그리고 당의 일각에서는 보수파가 견지해 왔던 좌파적 시각과 경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으며, 등소평의 동의를 얻은 후 당을 중심으로 좌파 보수주의들의 견해가 비판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수 많은 언론매체들이 ‘정신오염’반대 캠페인을 일거에 중단했으며, 반대로 개혁·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함으로써 등소평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등소평은 보수파의 정치적 견해가 국민통합에 있어 더욱 커다란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당과 인민군중이 주지하도록 정책을 전환했던 것이다.

## 2. 정책지지의 유형

### 1) 3면홍기운동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정권 장악 이후에도 항상 중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활용해 왔다. 그는 거대한 대륙과 과다한 인구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록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급진적 노선에 충실하였다. 그의 기본 구상은 인민군중의 혁명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해 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존기간 멀지 않은 장래에 이상사회가 도래하게 된다는 낙관론에 근거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신념은 ‘인간자본’(人間資本)의 발상으로서 전체 인민군중을 정치동원 차원에서 재조직하여 빠른 시간내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함과 동시에 인간의 의식개조를 완결짓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중을 대상으로 급진적 모험주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의식을 개조할 수 있다는 ‘인간자본화’ 논리였던 것이다.

모택동은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을 전후해서 중국의 근대화 목표의 기치를 선명히 내걸었다. ‘3면홍기운동’처럼 근대화 욕구가 급속도로 표출된 경우는 없었다. 그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빠른 이념적·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따라서 그는 마르크스의 정통교리를 부정한 셈이 되었다. 즉, 모택동주의자들은 고도의 현대적인 생산력이 갖추어져야만 계급투쟁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그 다음 단계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보장된다는 정통 공산주의교리와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그 이유는 모택동의 혁명적 체험에 기인하였다. 혁명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인간의 주관적 및 자발적 의식과 도덕적 심성이야말로 역사 흐름에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과, 참된 혁명적 창조력은 농민군중의 혁명적 에너지로부터 창출된다는 신조는 분명히 중국적 상황에서, 특히 모택동에 의해서 수정된 중국적인 공산주의 혁명경험에 바탕한 것이었다.

대약진 및 인민공사운동은 분명히 모험주의적 정책노선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정치동원 양식이었다. 모택동은 직접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반우파투쟁’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1957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8기 3중전회가 당 중앙위원을 비롯하여 당·정·군 그리고 성·시의 주요 책임자 4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서 모택동이 이전 계획했던 ‘농업발전요강’이 재차 수정되어 채택됨으로써 대약진운동은 사실상 이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요강’의 핵심 내용은 무진장한 농업노동력을 집단화시켜 집약농법(集約農法)을 실시함으로써 급진적인 사회주의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모택동의 판단은 경제논리나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고, 좌파적 급진주의는 항상 정치가 모든 것을 지도한다는 정치패수(政治掛帥)에 근거하고 있었다.

1958년 3월의 성도회의(成都會議)에서는 기존의 급진노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보다 많이, 빨리, 좋게, 경제적으로(多, 快, 好, 省) 사

회주의를 건설하는 총노선' 구호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5월 공산당 제8기 제2차회의에서는 유소기의 공작보고를 통해 위의 정책이 재확인되었다. 이 회의는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을 비롯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공업과 농업,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동시발전방침(兩條腿走路方針)을 결정했다.<sup>36)</sup> 부단혁명(不斷革命)의 낭만적 관점은 여름에 들어서서 더욱 고조되었다. 1958년 8월 17일에서 30일까지 북대하(北戴河)에서 개최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는 농촌에서의 인민공사설립결정(關於在農村建立人民公社問題的決議) 이외에 이를 구체화시키는 기본방침으로서 정사합일(政社合一) 및 공·농·상·학·병의 결합원칙에 합의를 보았다.<sup>37)</sup>

인민공사가 당의 결정에 의해 집단소유제로 유지된다는 것은 인민군중의 생활의 집단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토지·농기구·가옥·가축 등 모든 소유물이 인민공사에 의해 관리·소유되는 공동소유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중은 주택·식량·의복·의료·교육부문에서의 공동체 조직 속에서 집단생활이 불가피하였다. 인민공사의 규모 및 조직은 기층조직의 경우 생산대와 좀 더 큰 규모의 생산대대로 구성되었고, 동일하지는 않으나 한개의 인민공사에는 약 2,000가구로 약 1만명의 농민이 소속되어 있었다. 북대하회의 이후 2~3개월이 경과하면서 전국 농촌지역에는 빠른 속도로 인민공사가 건립되기 시작하여 1959년 봄에는 그 수가 약 2만 6천에 달하였다. 여기 소속된 농가는 약 1억 2천만호에 이르렀고, 전국 농가의 99%를 점하였다.<sup>38)</sup>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건립에 관련하여 모택동이 취했던 정책에 대한 인민군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동원의 형태는 신문·언론매체의 동원, 현지 답사 및 지도, 대규모의 인민군중 동원, 간부 및 지식인의 하방(下放), 새로운 인간상의 창출을 위한 집체교육 실시, 민병(民兵)의 재조직 등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 1957년 11월 13일자 인민일보에는 생산전선에 있어서의 커다란 약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내용이 처음 실리게 되었

36) 胡繩, 앞의 책, p. 351.

37) 위의 책, p. 352.

38) 위의 책, p. 354.

다. 그후 여러가지의 언론 논조가 대약진운동을 정치동원의 차원에서 합리 화시키고, 격려·고무하는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모택동의 모험주의 적 급진정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당내의 일부 경향을 매도하는 논조도 제시되었다.

1958년 여름은 ‘총노선’의 혁명적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건설의 속도는 생산력 발전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가운데 화급을 다투는 요인으로서 “하루가 20년에 상당한다”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인용했던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sup>39)</sup> 모택동 자신도 이러한 분위기를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지방의 현장을 답사하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958년 8월 상순, 하북(河北), 하남(河南), 산둥(山東) 등지를 돌아보면서 현장에서의 성과에 고무되었고, 북대화회의를 주재하면서 인민공사의 건립을 전 당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지도하였다.

하방운동 역시 정치동원의 한 유형으로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대약진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취해졌던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의 일환으로 1957년 5월 당 중앙은 ‘각급 간부의 생산노동 참가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958년 2월까지 국가중앙기관 간부 792만 명 가운데 16%에 해당되는 130만 명이 하방되었다. 그리고 1958년~1959년간 약 2백만명의 간부들과 약 3백만명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 교사를 포함한 약 1백만명의 지식인들이 대약진운동과 관련된 건설 및 생산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하방운동이 기대했던 것은 당·정·군 간부 그리고 지식인과 학생들을 통해 당의 3면홍기 정책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열성적 참여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이외에 ‘새로운 경제인’, 즉 농민이면서 노동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려는 데 있었다.

민병(民兵)의 재조직과 동원도 대규모적으로 확대되었다. 모택동의 인

39) 유소기의 정치보고 내용, 「中國共產黨第八期全國代表大會第二回會議文獻集」(北京: 外文出版社, 1958), p. 53; 中嶋嶺雄, 앞의 책, p. 169 참조.

식은 모든 인민군중은 농민이고 노동자이며 동시에 군인이라는데 바탕하였다. 1958년 여름 처음으로 등장했던 구호인 ‘모든 인민은 군인이다’는 의미 속에는 민병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와 지위 향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1959년 1월에 민병의 수는 약 2억 2천만명에 달했고, 이들은 당의 통솔 아래 군대의 지휘를 받으며 인민공사 조직 내부에 통합되었다.<sup>40)</sup>

## 2) 민주화 탄압

개혁파가 주도하여 추진해 왔던 개방정책은 중국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경향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외래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부르조아 자유화’ 물결이 차츰 침식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를 뒷받침해 주었던 사상적 및 이념적 기반에 있어 인민군중의 신념이 동요되었음을 뜻한다. 일부 지식인들의 ‘인도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서구 민주주의’ 주장은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 것으로서 당국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도 사회적 분위기의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대학생들의 소요는 1986년 가을부터 출현하여 겨울동안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다. 이들의 시위에서 나타났던 공동 관심사도 지식인들의 요구와 비슷하게 민주, 평등, 자유, 인권, 언론자유, 다당제, 개혁옹호 등으로 표출되었다.<sup>41)</sup> 그리고 일반 중국인들의 경우, 공산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던 사회주의에 관한 믿음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징후군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인민군중은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의 지도 그리고 사회주의의 미래 등에 관해서 이른바 ‘신념에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편 덩소평은 당 제12기 2중전회 이래 꾸준히 당의 사상지도 분야에서 부정적인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오염’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40)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 201~224 참조.

41) 당시 중국 대학생들의 시위 및 요구 조건 등에 관해서는 曾慧燕, 「中國大陸學潮實錄」 (香港: 新報出版社, 1989) 참조.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1986년 9월 제12기 6중전회에서는 ‘정신문명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를 채택하여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경향을 일소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이고도 엄중한 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러 부문에서 점차 돌출되어 나타났던 ‘부르조아 자유화’ 움직임은 쉽게 다스려지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등소평의 직계 인물로서 당 총서기직을 맡고 있던 호요방 자신이 이러한 민주화 요구에 동정적이었고, 그를 옹호하는 집단 가운데는 자유화·민주화를 적극 요구하는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6년 말 심각한 사회적 징후군으로 부각된 ‘부르조아 자유화’ 운동에 대한 진압 조짐은 처음 언론이 학생 소요사태와 일단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비판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시발되었다. 예를 들면, 1986년 12월 23일자 인민일보는 “정치적 안정과 단결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만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과격한 행동을 취하면 안정과 단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대체로 보수파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언론의 논조는 보수파에 속하는 원로 간부들과 등소평 간의 면담이 이루어진 후 더욱 강경성을 띠고 공격적으로 표현되었다.

보수성향의 원로 정객들인 양상곤, 여추리, 박일파, 호교목, 등력군, 왕진 등은 12월 27일 등소평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총서기 호요방의 해임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호요방이 당의 사상공작에 있어서 지도력이 빈곤하고, 반당 및 반사회주의 관념을 가진 작가들을 옹호해 왔으며, ‘부르조아 자유화’ 사상을 고취하고 선전해 왔으므로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sup>42)</sup> 이들은 이어서 이틀 후 발간된 인민일보와의 회견에서도 ‘자산계급 자유화’ 사상은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민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판하였다.<sup>43)</sup>

42) Lu Keng, “The True Story Behind China’s Political Shakeup,” *Pai Shing* (Hong Kong), No. 141 (April 1, 1987), p. 3.

43) 12월 29일자 인민일보는 당내 보수파 원로들과 저명 평론가인 원활성(袁闊成)간의 27일자 대담 내용을 게재하였다. 왕진은 전면적인 서구화 주장은 일종의 ‘자산계급 자유화’사상이며, 인민군중은 이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일파도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보수파의 입장을 이해했던 등소평은 1986년 12월 30일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생 소요사태와 관련된 중앙 부서의 책임자들과 나눈 담화에서 “여기 저기서 소요가 일어난 것은 각 지방에서의 지도 입장이 분명치 못했고 태세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두 지방문제가 아니며 1~2년 걸릴 문제도 아니다. ‘4항기본원칙’을 엄격히 견지하여 ‘자산계급 자유화’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산당의 지도 없이는 사회주의의 앞날도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sup>44)</sup>는 강경 자세를 분명히 밝혔다.

자유화 동향에 대한 탄압이 점차 본격화되는 가운데 1987년 1월 6일자 인민일보는 지난 해 12월 30일에 행해졌던 등소평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기치 선명하게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자’는 주장은 인민군중에 대한 폭넓은 호소였다. 당내 보수파의 기우를 불식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인민군중의 당 및 사회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최종적 선택은 당시 등소평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리하여 등소평은 1월 16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호요방의 해임에 동의하였고, 그의 후임으로 조자양 총리를 총서기에 임명하는데 있어 보수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 중앙은 등소평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당원으로서 자유화운동을 주도해 왔던 주요 인물들을 당으로부터 추방하였다. 주요 인사를 보면, 방려지(方勵之)는 합비(合肥)시 소재 중국과기대학 부교장직에서 해직되면서 당적을 박탈(1987. 1.17)당했고, 상해시 작가협회 이사 왕약망(王若望)과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유빈안(劉賓雁)도 각각 13일과 14일자로 당적이 박탈되었다. 그리고 당 선전부장 주후택(朱厚澤)도 교체되었으며, 이들 지식인의 작품을 집중 보도해 왔던 상해의 사회보(社會報)도 1월 12일자로 정간 조치되었다.

호요방의 실각은 여러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가 당의 총서

사실상 사회주의 태도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체도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인민군중의 이익과 역사 조류에 위배되며, 많은 인민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44) “旗幟鮮明地反對資產階級自由化,” 「鄧小平文選」第三卷, pp. 194~197 참조.

기로서 자유화 및 민주화운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다. 둘째는 호요방이 총서기로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원로들을 가능한 배제시킨 가운데 독단적인 결정을 선호했으며 집권층 내부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권열(圈閱)<sup>45)</sup> 제도를 폄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요방은 원로들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패척결이라는 개혁 차원에서 체포 및 구금함으로써 보수파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sup>46)</sup> 셋째, 호요방은 군부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가 군 원로들을 조기 퇴진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국방예산 삭감을 지지했던 것 등은 모두 군부의 그에 대한 비판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끝으로 파벌주의 오류도 지적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 되었던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의 인물들, 예를 들면 호계립(胡啓立), 교석(喬石), 오학겸(吳學謙), 왕조국(王兆國) 등을 중용함으로써 다른 파벌측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원인은 모두 파벌주의 조성이라는 비판 죄목이 되었다.

등소평이 호요방의 경질에 동의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4항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내적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노선인 개혁·개방방침을 초지일관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즉 현대화정책에 대한 인민군중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호요방의 급진적인 개혁정치가 아무런 규제없이 독선적으로 진행될 경우, 정치개혁은 당·정분리, 권력분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 권위의 축소, 인민군중의 당에 대한 신뢰감 저하,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걸친 신념상의 동요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정세 평가에 기인하였다.

45) 권열제도란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당의 원로들이 서면으로 작성된 정책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 및 견해를 서면 형식으로 표현하는 장치로서 일종의 제도화되지 못한 정책결정과정의 한 양식이다.

46) 예를 들면, 정치국원이자 원로 지도자인 호교목의 아들을 비롯하여, 원로인 팽진(彭眞)의 딸이 뇌물 수수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군의 원로인 전 해군사령관 엽비(葉飛)의 딸도 뇌물 수뢰로 입건된 바 있었다. Parris H. Chang, "The Changing Nature of Elite Conflict in Post-Mao China," Victor C. Falkenheim(ed.), *Chinese Politics From Mao to Deng* (New York : Paragon House, 1989), p. 136의 註 14) 참조.

### 3. 권력투쟁의 유형

#### 1) 문화혁명

모택동은 계속혁명의 관점에서 부단한 계급투쟁, 부르조아사상 반대, 수정주의 비판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관련하여 정치동원 추진의 명분을 합리화해 나갔다. 그는 자신이 당내에서 파벌세력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권파에 비해 힘의 열세를 면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과의 권력투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했으며, 이에 따라 탈권의 명분과 이유를 또한 ‘계속혁명론’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모택동과 그 추종세력은 1965년을 기점으로 삼아 소위 ‘문예정풍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군부가 가장 먼저 모택동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즉 인민해방군의 기관지 ‘해방군보’는 1966년 4월 18일자 “모택동사상의 위대한 적기(赤旗)를 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자”라는 사실을 통해 최초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모택동이 탈권투쟁에 앞서 임표가 이끄는 군부의 적극적 지지를 사전에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당 중앙이 문혁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군부가 먼저 모택동의 탈권의사를 수용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모택동지지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조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1965년 여름 북경(北京)의 당권파의 득세에 밀려 자신의 추종세력이 활동하고 있던 상해(上海)로 일시 정치활동의 무대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상해는 정치적 급진세력의 아성이었고, 모택동 추종자들이 가장 왕성한 정치활동을 벌이던 곳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모택동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주는 한편 당권파(當權派)를 비난하기 위한 선제공격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급진좌파에 속했던 요문원(姚文元)이 1965년 11월 10일자 문화보(文匯報)에 “신관 역사극 〈해서파관〉에 대한 평가”(評新編歷史劇〈海瑞罷官〉)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해서

파관'은 풍자적인 사극으로서 1962년 당시 북경시 고급 당간부였던 오함 이 과거 모택동에 의해 숙청당했던 팽덕회를 두둔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 것인데, 명나라 관리인 주인공 '해서'가 부당하게 관직을 박탈당했던 고사를 인용하여 모택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요문원이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극을 대중지를 통해 재평가했던 배경은 북경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강력한 파벌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당권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모택동주의자들은 당권파에 대한 공격 및 투쟁을 인민군중의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킬 의도를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한편 당의 차원에서 여전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택동은 1966년 5월 4일부터 26일간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유소기·등소평 등의 반대 파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5월 16일 이른바 '5.16통지'를 당 내외에 배포함으로써 문혁의 기치를 올렸다. 또한 1966년 8월 1일부터 열렸던 당 제8기 11중전회는 보다 강경하게 문혁에 관한 결정(일명 16조)을 최종 채택하여 모택동과 그 추종세력의 권력투쟁 시도를 정당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5.16통지'에 의거하여 중앙문혁소조가 결성되었고, 이후 지방의 각 성·시·자치구 단위는 물론이고 말단 각급 조직 수준에 이르기까지 문혁소조가 일사불란하게 구성됨으로써 전인민군중이 이에 동원되었다. 노동자·농민·병사 등으로 구성된 군중대표의 주도와 인민군중의 강제적 참여는 문혁의 탈권투쟁 성격, 규모 및 범위가 전국적인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모택동은 '조반운동'의 명분으로서 '4구'(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관습)를 타파하고, '4신'(신사상·신문화·신풍속·신관습)을 세워야 한다는 破舊新立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어린 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조직된 홍위병(紅衛兵)이 광폭한 군중운동을 주도하는 데 선봉이 되었으며 '조반유리'(造反有理)의 명목 아래 모택동의 탈권투쟁 과정에 적극 동조·참가하였다. 홍위병이 정치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극적인 상황은 1966년 8월 18일 북경의 천안문광장에서 모택동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온 수백만 홍위병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하면서 그들의 문혁 참가를 열렬히 찬양

했던 데서 엿볼 수 있었다.

문혁의 정치적 격변과 혼란에 따른 정치혁명은 모택동의 권력투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적 성향을 지닌 과벌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힘의 열세를 극복하고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인민군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일이다. 모택동은 스스로 탈권을 목적으로 인민군중을 동원하는 방법에 의존하였다. 자신의 권력투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켜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완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문혁이 전형적인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동원이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 2) '범시파'의 숙청

등소평의 복권은 그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필연적인 대립 및 반목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위 회복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북경시장이었던 오덕(吳德)은 화국봉(華國鋒)의 지시에 따라 등소평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택동의 전 경호실장이자 당시 당 정치국상무위원이었던 왕동흥(汪東興)도, 모택동주석이 등소평에게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고 모주석에 대한 추모정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밝혔다.<sup>47)</sup>

화국봉이 당시 당면했던 최대의 정치적 과제는 등소평의 복권 시도를 어떻게 회피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데 있었다. 1977년 3월에 열린 당 중앙공작회의는 등소평의 복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되었다. 여기서 화국봉은 '4·5천안문'사건에 관한 반혁명 단죄는 모택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계급투쟁을 견지하면서 무산계급독재로서 계속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혁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7) Lo Ping, "The Political Eclipse of the "Whatever Faction," *Peking Review* (Feb. 1979), pp. 5~8; Parris H. Chang, "The Emergence of Reform Forms and Policies," Sang-Woo Rhee(ed.), *China's Reform Politics: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6), p. 5 참조.

는 ‘범시파’(汎是派)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직된 자세는 등소평의 능력·인맥·영향력을 고려할 때, 등소평의 복직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들의 위기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엽검염·이선념·진운·왕진 등 원로 정치인들의 줄기찬 중개 역할과 등소평의 타협적 태도 표명, 그리고 화국봉의 소극적 대응 등이 결합되어 등소평의 복권은 마침내 당의 공식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복권에 성공한 등소평은 현대화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이념적 요소를 제거함과 아울러 젊은 차세대 간부들을 중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궁극적인 타도 세력인 화국봉의 ‘범시파’를 견제하고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등소평의 권력 투쟁 시도가 최초로 구체화된 시기는 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부터였다. 이 회의는 모택동 사후의 중국 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띤 것이었을뿐만 아니라, 등소평 개인의 권력에의 도전 기회를 공식화했다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등소평이 이 회의를 전후하여 ‘범시파’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표면으로 돌출시켰던 사정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상노선에 있어서 화국봉 지지세력의 사상적 경향을 비판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모택동평가운동을 공개적으로 시도하여 이념상의 논쟁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기하였다. 등소평의 계획에 따르면 모택동사상의 과학적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준에 관한 공식적인 토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정·군만이 아니라 인민군중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이 폭넓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언론매체를 정치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78년 5월 11일자 광명일보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기사(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를 게재하였고, 6월 16일자 인민일보는 진리 기준문제(關於真理的標準問題)를 재론함으로써 동원의 효과를 꾀하고자 했다.

이 시기 등소평은 모택동사상에 충실해왔던 군대를 대상으로 하여 사상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요지는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와 모

택동사상이 실제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론과 정책이 정확한지의 여부는 오직 실천 속에서만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sup>48)</sup> 등소평은 모택동사상을 재평가하고 문혁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시정하며, ‘4인방’은 물론이고 ‘범시파’의 사상적 오류를 비판하기 위해 당론의 분열을 각오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사상논쟁을 주도하였다. 등소평의 비모택동화(非毛澤東化) 또는 모택동격하운동은 이처럼 언론매체와 당·정·군 조직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제11기 3중전회는 등소평의 ‘실사구시’, ‘사상해방’ 주장을 당의 공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의 활동 및 공작 중점을 사회주의현대화 건설로 옮긴다는 데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화국붕으로 하여금 모택동노선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모택동이 ‘4인방’을 옹호했던 것 역시 잘못이었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등소평은 제11기 3중전회에서 ‘4·5천안문’ 사태가 반혁명적인 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모택동과 ‘4인방’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던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당의 문서를 모두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에 족하지 않고 화국붕 역시 ‘4인방’과 함께 문혁과정을 통해 혜택을 입었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부각시킴과 아울러서 그를 그릇된 사상 경향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로 확대 묘사하고자 했다.

등소평의 선택은 유소기의 복권 추진과 ‘4인방’에 대한 공개재판의 진행으로 나타났다. 유소기의 복권은 문혁의 과오와 관련하여 모택동을 비판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모택동노선의 일부를 완전 부정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등소평은 더욱 유소기 복권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4인방’에 대한 재판 공개는 곧 모택동에게 가하는 공개비판의 성격을 띠는 것과 다름없었다. 1980년 11월 20일부터 수 주간 계속된 공개 재판 실황은 TV의 황금시간대에 맞추어 방영되었으며, 사상 유례없이 의

48) “在全軍政治工作會議上的講話”(1978. 6. 2), 「鄧小平文選(1975~1982)」, pp. 108~120.

국에도 공개리에 소개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인민군중을 상대로 시청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등소평세력의 의도적이며 계산된 정치동원이었다.

등소평의 정치적 승리는 1981년 6월에 열린 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회의에서 등소평 지지세력 가운데 제1인자인 호요방이 당의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른바 약칭 ‘역사결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택동의 역사적 지위와 그의 사상에 대한 최초의 당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문건이라 할 수 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은 ① 건국 이전 28년간의 역사적 회고 ② 건국 이후 32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본평가 ③ 사회주의 개조의 7년간 ④ 사회주의 건설기의 10년간 ⑤ 문혁기의 10년간 ⑥ 역사의 대전환 ⑦ 모택동의 역사적 지위와 모택동사상 ⑧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분투 등이다.<sup>49)</sup>

이 문건의 의미는 모택동 개인과 중국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모택동 사상을 분리시키려는 것과, 모택동사상을 그 개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집체적 지혜’로서 인정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좌’ 편향의 과오로 인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경험도 없이 정세를 오관하여 계급투쟁을 확대시켰고, 경제건설에 있어서도 조금 하게 무모한 오류를 범했으며, 문혁의 과오를 저질렀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총괄적 평가는 모택동이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문혁이라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으므로 공적이 첫째이고, 과오가 두 번째라는 것으로 내려졌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문건의 채택은 등소평의 권력 장악을 대변해 줌과 동시에 모택동과 관련된 과별투쟁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역사결의’의 채택으로 모택동에 관한 당의 공식적 평가가 내려졌고, 등소평의 현대화정책이 중국의 공식 정책노선으로 등장함으로써 당원을 대상

49) “對起草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的意見,” 「鄧小平文選(1975~1982)」, pp. 255~274.

으로 하는 정풍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풍을 쇠신하고, 당원을 정화하는 작업은 이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급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개혁파는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당면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숙청작업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치동원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등소평은 1981년 11월 12일 정치국회의 석상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범시파’를 위시한 당원 숙청의 일환으로 ‘3종인’(三種人)을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중앙 및 지방의 당·정·군 간부 60여만명과 부부장급 이상의 고급 간부 1천여명에 달했다.<sup>50)</sup>

#### IV. 결론 : 모택동시대와 등소평시대의 비교

사회공동체의 질서·안정·번영·발전은 독특한 이념·사상·가치·규범에 근거한 통치양식에 의존한다. 통치 및 지배가 용이하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해 신념과 복종을 바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동원은 사회·정치적 가치·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양식을 부정하고 따르지

50) Chang Chen-Pang "Peiping's Rectification of the Party Work Style," *Issues & Studies*, Vol.18, No.5(May 1982), pp. 1~5 참조. '3종인'의 분류기준을 보면 첫째, 제1종인은 문혁 때 조반(造反)행위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관직에 오른 후 악행을 저질러 왔던 죄질이 가장 나쁜 자들이다. 제2종인은 파벌 경향이 농후한 자들로서 3가지 특성을 지녔는데, ① 급진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② 임표 및 '4인방'과 파당을 조직하며 ③ '4인방'이 타도된 이후에도 계속 파벌활동을 했던 자들이다. 제3종인은 문혁기간중 구타·폭력·약탈행위에 가담했던 자들로서, 이들 중에는 간부와 인민군중을 무고하게 박해했거나 고문을 가하여 신체 불구자로 만들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습격하여 공문서를 빼앗고 공적 및 사적 재산을 파괴한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무력 대결을 계획·조직·지휘하여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킨 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않는 무리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치동원의 궁극적 의도는 집권자 또는 집권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목표를 위해 사회를 변화·개조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치동원은 정치사회화 또는 정치교화라는 형식의 사회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다. 정치교화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한 사회통제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의식개조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남아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통제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내에서의 충돌·투쟁·대립·갈등 그리고 권력을 사회통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를 계급의 모순이 빚어낸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체의 부르조아적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도 이러한 기본 인식에 근거하여 정권 장악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학·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삼아 계급투쟁 및 사회통제를 실시해 왔다.

사회통제는 주로 인민군중의 의식개혁 또는 사상개조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공산당의 최대 임무는 당이 총책임을 지고 인민군중을 사회주의적 규범을 갖춘 집체적 존재로 재창출하는 의식개조작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가치·규범을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교화시키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면 정치권력의 안정적 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마침내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의식개혁을 통한 정치교화는 정치권력의 주체와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한 충성심 및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우파투쟁’과 더불어 지식인의 사상개조운동이 전개될 때, 모택동은 지식인들에게 ‘홍’과 더불어 ‘전’(又紅又專)을 요구하는 한편 충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보여주는 운동, 즉 교심운동(交心運動)이 전국적 규모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방’을 통한 노동개조와 자아개조를 유도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모택동 개인, 공산당, 현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모택동의 통치행태는 대체로 모택동 개인의 사회주의에 관한 입장·견해·미래에의 전망 및 비전 등에 의해 그 동기가 부여되었다. 그는 중국을 새로운 사회주의로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개조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추진함에 있어서 당내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거나 숙청해 왔으며, 군부와 광범위한 인민군중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정치동원을 추진해 왔다. 모택동의 집권기는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볼 때, 초기의 동원체제형식과 동시에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원체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표방하는 목표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이념지향적 속성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모택동은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당면의 최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명 이데올로기를 최우선시하고 ‘홍’노선에 의존함으로써 모든 정책에 대한 인민군중의 지지와 그들로부터의 정통성 획득에 가능성과 기대를 걸었다.

한편 과도기적 차원에서, 모택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실천적 요소 양자의 결합을 통한 정치동원을 시도했다. 이념적 요인이 우선시될 때는 정치동원의 양상이 주로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군중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천적 요인을 앞세울 때는 주로 인민군중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치동원의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인민군중으로부터 얻어낸 정통성을 담보로 하여 모택동과 그 지지세력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는 정책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향후 중국사회의 미래가 오직 모택동의 통치노선에 달려 있다는 확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였다.

모택동이 인민군중을 대대적인 정치동원의 객체로 활용하는데 대부분 성공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의 의식개혁에 실패했던 것 또한 부정될 수 없다. 그 이유를 들면, 첫째로 정치적 표어·슬로건·행동주의에만 지나치게 구애됨으로써 정치동원 이후의 제도화에는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동원의 본래 목적보다 동원 자체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가치·규범·도덕의식 등이 인민군중의 보편적 의식형태로 승화되거나 보편성의 원리로 주지되지 못하고, 모택동 개인의 권위주의 및 독재권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에 대응하여 위로부터의 정치동원 및 정치교화를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에서만 고려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인민군중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댓가로서 보여준 정치참여 행위를 당과 모택동은 정치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파악함으로써 인민군중의 현실적 괴리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 또는 계속혁명논리를 사회주의가 보다 높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모택동이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인민 또는 계급의 적을 숙청하는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등소평시대의 개혁과 개방은 현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대화는 이념보다 능률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실용주의의 효과는 적법성의 동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거두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대화를 위한 사회변동의 조건을 정비하고 창출해 내는데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배제될 수 없었던 점이 현실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3중인’을 숙청하고 그에 대신하여 제3세대 신진 인물들을 충원하는데 있어 선별의 기준은 역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모색되었다.

등소평은 조직적·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정통성의 뿌리를 내리고자 했으나, 인민군중의 ‘신념상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다. 등소평의 집권은 분명 실용주의자들에게 있어 ‘정치과수’원칙의 부정과 탈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당 제11기 3중전회 결정 이래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용주의자들은 제도화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은연중에 인민군중의 정치적 무관심 경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였다. 그들은 ‘정경분리’를 비롯해서 민주화·법제화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으며, 나아가서 인민군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의 재창출을 기도하였다. 등소평정권은 사상해방, 실사구시, 경제우선 등으로 인민군중의 사상개조 및 가치체계 변화를 기대하는 가운데 그에 적절한 사회변동 및 제도화를 주도하였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동원은 기존의 가치·규범·제도의 틀을 부정하고 깨뜨림으로써 정치·사회적 긴장을 확대재생산하였다. 그리고 긴장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통치수단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사회변동을 제도화수준으로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성의 확보에도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간에 정치동원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는 사회변동을 체제의 목표와 조화시키고 체제내화(體制內化)하는 정도, 즉 제도화의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산당이 목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택동시대와 등소평시대의 통치행태에서 특징별로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측면과 지속적 측면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먼저 변화의 성격은 첫째, 모택동시대 ‘계속혁명’의 이상론으로 일관했던 계급투쟁의 관점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흑백논리에 의해 적아(敵我)를 구분했다. 따라서 권력투쟁의 대상 인물을 제거함에 있어 계급의 적이라는 표적을 강조했다. 그러나 등소평시대의 경우에는 경제건설 및 현대화노선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자를 제압하는데 있어 개혁·개방의 실용성 및 효과가 투쟁의 기준이 되었다.

둘째, 투쟁의 대상자를 제거하는데 있어, 모택동시대에는 당 중앙공작회의나 정치국확대회의 등 자의적이고 비공식회의를 통해 먼저 제거 인물을 결정한 뒤 당의 공식적인 추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등소평 집권기에는 제한적이거나 비교적 제도 및 절차를 밟는 방법에 접근하였다. 즉, 당의 중추조직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거 대상자에 대한 시비를 가린 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셋째, 정치동원의 경우, 모택동은 영구혁명과 계급투쟁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순수성 확보 등 교조주의적 관점에서 추진하였다. 그러나 등소평은 이와 달리 경제건설과 체제의 안정유지 등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정치동원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지속적 측면은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확보와 정치적 투명성 보장에 근거하는 정권 교체보다는 인민군중을 이용하거나 그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답습하였다. 둘째, 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군대·공안 등 폭력적이고 비합리적 장치에 의존하였다. 셋째, 정치적 목적을 띤 특정의 사상주입과 지도자 개인의 정통성 확보, 그리고 정책결정 이후의 합리화를 위해 지도자 개인의 사상연구 등 대규모의 학습운동이 병행되었다.